

아름다운 세상

·글 기증자 유영운 님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시간은 역시 빠르게 흘러가네요. 지금은 그때의 기억이 거의 나질 않아요.

처음 조혈모세포기증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군복무를 할 때 성덕 배우만에게 조혈모세포 기증을 한 기증자가 저희 부대에 있어서 참 대단한 분이구나 생각했고, 나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제대를 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헌혈을 자주했어요. 건강도 확인하며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일석이조였거든요. 그렇게 헌혈을 하는 중에 간호사 선생님께서 조혈모세포기증 등록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기증등록을 했습니다. 그 뒤, 헌혈을 꾸준히 하였고, 조혈모세포기증 등록한 것은 까마득히 잊고 지냈습니다.

2005년 5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잊고 지냈는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라고 하더군요. 기증의사를 묻는 질문에 생각해보는 것도 없이 흔쾌히 허락을 했죠. 얼마 후 정확한 검사를 위한 채혈을 하기 위해 이곳 정읍까지 찾아오셨더군요. 그 후 바로 연락이 왔고, 수혜자가 급한 상황이라서 바로 기증을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모든 검사와 자기수혈까지 마치고 전북대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부인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서 혼자 입원을 했어요. 무척 서운해 하고 걱정하는 모습이었지만, 잘 견뎌낼 거라 믿고 혼자 보내주었지요. 중양내과 병동이 아닌 정형외과 병동에 입원을 해서 첫날은 몇 가지 검사를 더하더군요.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요.

다음날 8시부터 채취를 시작했지요. 입원하기 전 몸을 보호한다는 생각에 고기를 많이 먹어서 채취시간이 3시간이나 길어졌다 하더라고요. 채취를 끝내고 회복실에 가서도 그냥 깨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병실로 와서 주사를 맞고 다른 기증자들은 수술 후 모래주머니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모래주머니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조금 불편할 뿐 기증을 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다음날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세심하게 챙겨주신 코디네이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사 사장님의 배려로 4일간의 휴식을 더하고 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지만 감사패로 인해 사랑을 실친했다는 실감이 납니다.
그동안 2번의 감사의 밤을 참석하여 수많은 기증자들을 보니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헌혈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다시 기증의
기회가 된다면 망설임 없이 기증을 할 꺼라 자신합니다.

수혜자분도 건강 되찾으셨는지 궁금해요.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고

· 글_기증자 김 중 현 님



1996년 군에서 전역을 하고 1년여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1998년 어느 날 코디네이터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 생활 중에 헌혈하며 작성한 골수기증신청(신청당시에는 골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을 잊고 있었는데 저와 조혈모세포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얘길 듣고 별생각 없이 코디네이터 선생님을 만나 기증에 관한 설명을 듣고 반송낙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허나,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증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 한 켠에 짐이 있었고, 죄를 짓고 산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다른 분의 기증을 받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리라는 자위와 믿음으로 그때

의 환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로부터 6년여의 시간이 흘러 2005년 초순, 또 한 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꼭 기증 하리라 마음먹었고, 혹 주변의 여러 피치 못할 상황으로 지난번과 같은 일이 벌어질까봐 기증을 결정하고 나서야 지금은 아내가 된 여자 친구에게만 알리고 그해 7월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증 후 저는 지난번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며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전 수기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생각해보다 수기라기보다는 꼭 할 얘기가 있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가끔, 기증하신 분들의 기사가 매스컴에 보도가 되곤 합니다. 의례 현역군인이라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의 기증이야기입니다. 기증자 본인의사보다는 군 홍보 기사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환자의 아픔이 먼저인데 군 소속 기증자의 기쁨이 앞서니 말입니다. 저 또한 군에서 신청을 했으니 군 복무 중에 기증을 했다면 인터뷰 기사가 났겠지 하는 생각도 해보며 쓴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단 네티즌의 의견을 읽고 있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많은 네티즌의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수술을 참아가며 기증을 한다며 대단히 큰 선행을 한 것처럼 과도한 칭찬일색입니다. 저 혼자 생각인진 몰라도 그 칭찬 글들을 보며 더욱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생길듯해 보여 오히려 걱정입니다. 정작 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분이, 사실은 그렇게 아프고 두려워 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기증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기증자를 폄하한다고 나쁜 댓글이 달리는 게 현실입니다. 제 자신과 기증을 한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칭찬받을 일을 한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대부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마스크 사회면에 기사가 되려면 특별하거나 화제거리거나 희소성 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헌혈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기사가 실리거나 과도한 칭찬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헌혈 해본 사람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헌혈도 아직 많이 필요하단 알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이 기사가 된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며, 더 많은 분들이 기증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아프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젠가는 아주 많은 분들이 기증을 하여 사회면에 위와 같은 기사가 실리지 않는 날을 기대해 보며, 영화배우 최강희씨가 연예프로에서 나와 인터뷰(본인은 인터뷰 또한 안하려고 했다고 합니다.)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은 취미인 헌혈을 하다 서약서를 썼고 그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고...' 전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평범한 직업을 가진 분은 아니나 평범한 생각을 가진 분이라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투병하시는 모든 분들 완쾌되시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아빠의 감사

· 글 기증자 임 광수 님

기증자 수기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난히 더웠던 2005년 7월 골수이식수술을 하던 때에 나는 무슨 생각으로 기증을 하게 되었는지 2년 전의 일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교회에서 기증서약을 하고 있고 지내던 중 몇 달 후 조건이 일치하는 어린 환자가 있다고 하는 소식에 평소 흔한 행운권 추첨도 당첨 되어 본적이 없는 내게 당첨(?) 되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고 그때부터 4~5개월 검사 및 준비를 해오다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업무로 한참 더운 날씨에 해외출장을 오가며 많이 지쳐있을 때였지만 어린 생명이 달린 일로 내 아이가 그런 상황이라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할지 잠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 후 망설임 없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인 당시에는 아기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되는 시기였고, 우리 부부를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한 구석의 보상심리도 있었습니다.

수술기간 3~4일 동안은 오히려 업무로 지친 내게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탁 트인 전망의 병실은 충분한 휴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소식을 듣고 면회 온 짝들이 선배들은 기특하다며 비싼 과일도 사오고, 칭찬도 해주고 아무튼 좋은 대접을 받으며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코디네이터로부터 어린 환자의 수술을 잘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일상으로 돌아와 바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중, 2005년 9월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내와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 부부에게 허락된 행복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독일월드컵의 함성이 울리던 2006년 6월 11일 새벽, 건강한 딸을 출산하게 되었고, 출산 전에 검사수치가 좋지 않아 산부인과를 3번이나 옮기며 가슴 졸이던 아내는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씩 맞냐고 가장 먼저 물으며 그 동안의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탯줄을 자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엄마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얻는 것도 이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몸에서 나온 자녀의 생명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나에게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3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 일할 직장이 있다는 것, 전세로 있지만 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집이 있다는 것 등 평범해 보이지만 내게 주신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 많은 나는 진짜 부자아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꺼이 줄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